

표준논단

표준이라는 새로운 규범, 표준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정병기

영남대학교 교수
031-801-2651

다양성의 사회와 새로운 규범

“값수록 아는 것이 적어진다.” 현대 사회의 지식 범람을 두고 회자되는 말이다. 많이 알게 되면 필수록 점점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역설로 풀이해보면, 안다는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식의 영역이 무한히 확대된다는 얘기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지적 추구가 가능할 정도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이 정보들은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현대는 마야츠로 생비자의 시대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이 중첩되는 생비자(生費者, prosumer) 현상을 두고 유행하는 말이다. 생산은 더 이상 생산자(producer)의 전유 영역이 아니며 소비자(consumer)는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쳐 상품과 서비스의 변화에 기여하는 생비자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또한 역설로 풀어보면, 소비자의 힘이 강해지는 만큼 기업과 같은 생산자들의 행포가 키져왔다는 것이다. 이제 기업도 자신의 생산 영역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횡도 매우 막대해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현상을 다양성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가 생산되고 소통될 뿐만 아니라, 강자의 획일성 주장에 대응하는 것도 약자의 다양성 요구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규범의 다양성 속에는 언제나 약육강식의 법칙이 도사리고 있다. 약자의 다양성 요구와 강자의 획일성 주장 사이에 다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여 진 높은 실질적 다양성으로 발전시키고 무한성생에서 상호 발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새로운 규범은 국가가 전일적으로 규정하거나 시장에서 무규제적으로 생겨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사회주의의 폐단이나 시장자유주의의 실패를 우리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보아왔다. 요컨대 사회 행위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규범 생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표준이라는 새로운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표준의 기능과 사회경제적 영향의 확대

표준은 이미 우리 주변에 생활화된 현상이다. 표준은 비단 생산과 무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문과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퍼져 있다. 표준 교과서나 한글맞춤법통일안 및 각종 도량형과 단체실험표준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전통적으로 표준은 호환성 확보, 기본 품질 보장, 정보 제공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품과 공정뿐 아니라 제도와 경영 및 문화와 윤리의 영역에도 확대되어 이제는 법률의 내재 개념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넘어 표준은 무역 규범, 사회 통합 수단, 사회적 책임(SR) 이행 수단, 기업 경영 전략, 기술혁신 도구, 지속가능발전의 도구로도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환경, 문화, 행정, 복지 및 윤리에 이르기까지 표준의 기능은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 각종 표준화 기구들이 이 분야들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표준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실로 막대하다. 세계 무역의 약 80%가 표준의 영향에 있으며,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표준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독일표준협회(DIN)는 독일에서 표준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들 연간 160억 유로(Euro)로 추산하는데, 이는 독일 GNP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영국표준기구(BSI)도 표준화에 의한 노동생산성 상승 효과가 13%에 이른다고 평가하며, 오스트레일리아표준기구(SA)도 국가표준이 1% 증가하면 생산성도 0.17% 상승한다고 보았다. 그 밖에 사회적 책임과 안전보장 및 기본품질 보장 기능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비록 계량적 측정은 어렵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심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준이 미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표준의 본질적 기능이 산출하는 표준화 효과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의 효과는 크게 수확증중 효과,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 확장성 효과 및 공공성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표준

의 사회경제적 효과들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효과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다. 그 부정적 효과로는 고착화 현상과 양분화 현상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네트워크 효과와 직접 관련된 부정적 과공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부정적 효과들은 긍정적 효과들과 맞물려 발생하는 만큼 긍정적 효과들을 충분히 살리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효과들은 대부분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사실상 표준'에서 자주 나타나므로, '공적 표준'의 구축력 확대를 통해서도 일정한 해결이 가능하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변증법, 공공성과 질 높은 다양성의 추구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그에 맞추어 표준의 영역과 기능도 무한히 확장되어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 규범으로서 표준은 국가에 의한 강제 규정에 머물지도 않으며 시장에 방임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공적 접근성을 가지며 갈수록 그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다.

표준은 공적 성격을 띠지만 자발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구속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법이나 명령 및 조례와 같이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합의를 통해 제정하여 임의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을 선점한 자와 수용한 자 및 수용하지 않은 자 사이에서 갖가지 기능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공적 성격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사회가 복잡해전수록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영역이 확대되며 그에 따라 자발성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양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규범으로서의 표준의 성격은 이와 같이 공적 접근성과 함께 다양성의 보장과 관련된다.



국제적으로도 국가들간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사회를 온전히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성, 문화, 인종, 종교, 언어 등의 모든 현상들이 세계화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결코 단일성으로 귀결될 수 없는 다양성의 복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질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발전지향적 모범이 되는 규범이다. 그리고 이 규범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실로 원자화의 시대에서 통일로 발전하고 다시 통일에서 다양성으로 발전해 왔다. 시황제의 진나라와 로마 제국 이전에 동·서양은 제각기 수많은 나라들이 각축하던 원자화된 사회였다. 이 시대가 진(秦)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었으며, 이 제국들은 다시 해체되어 봉건사회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봉건사회는 과거의 원자화된 소규모 국가들보다는 큰 규모의 국가들이 각축하는 사회였다. 원자화와 통일의 변증법적 발전이 이루어져온 것이다.

이후 봉건 사회의 제후국들은 다시 통일의 수순을 밟아 민족국가들 이루고 급기야 양차 대전의 진후해서는 파시즘 국가들과 자유주의 국가들이라는 두 진영으로 분리·통합되었고, 이 형태는 양차 대전 이후 현실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진영으로 재분할되었다. 이른바 동맹의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져온 것이다.

그리고 1980년 말 이후에는 지식과 감성으로까지 기술 개념이 확장되는 다양성의 사회가 드러났다. 그와 동시에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통일성의 기운이 팽창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통일성이 다양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발전적으로 종합하면서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다양성은 획일성을 요구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인간과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골고루 반영되는 새로운 통일성이 될 것이다.

그 새로운 통일적 규범이 곧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표준은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학문, 표준학의 성립을 위하여

학문의 영역에서도 표준에 대한 새로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독자적 학문의 성립은 고유한 연구 대상의 존재, 이론과 방법론의 발전, 연구 결과물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떤 대상이 인간과 사회 및 자연의 본질을 구성하거나 심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학문적 대상으로 독립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 법치국가가 생겨나고 법이 더 이상 권력현상의 수단이라 아니라 근대국가의 존재근거로 확립됨으로써 법학이 발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표준도 그 영역과 기능 및 사회경제적 효과가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시대 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사회적 요구와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방법론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출된 표준 연구들에서 경제학과 공학 및 행정학 이론과 방법론들이 활용되어왔다. 표준에 대한 연구가 정보나 제품 및 기술과 공정들에서 개별 품목과 사안에 대해 이루어져 왔으며, 심지어 문학에서도 맞춤형통일안과 같은 개별 표준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론과 방법론의 발전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이 이론과 방법론의 체계화이다. 개별 분과학문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어 온 이론과 방법론들을 학제적으로 엮어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물도 각분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하게 축적되었다. 이론과 방법론이 분과학문별로 발전해왔듯이 연구 결과물도 분과학문들

내에서 개별적으로 축적되어온 것이다. 역시 남은 문제는 연구결과물의 체계화이다. 모든 학문은 이론과 방법론 및 연구 결과물의 총체적 체계화라는 총론을 필요로 한다. 표준 연구의 학문화는 이러한 총론 작업을 남겨두고 있으며, 표준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총론적 작업도 비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표준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영문 표기는 standardology, standardics 혹은 standard science가 가능할 것이다. 표준학이 독자적 학문으로 수립되고 그 질적 발전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역량의 확대와 노력이 경주되기를 기대해 본다.

| 기술표준 2009. 6